

존경하는 이낙연 총리님께 ‘탈원전’정책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이 총리 탈원전 왜곡·과장에 발끈, 대만과 다른데 국민만 불안> 기사를 보고 총리님께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많은 국민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일부의 왜곡이나 과장”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피해와 외국의 사례 등을 보며 점차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세계 정상급 원자력 기술을 가진 한국이 ‘탈원전’을 선언한 것을 두고 21세기 不可思議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원자력에 관해 우리나라와 대만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원전 건설과 운영관리의 독보적 기술을 갖추고 있는 수출국인데 반해, 대만은 단지 원전을 운영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원전 건설 및 안전운영기술은 세계인에게 청정에너지를 선물할 수 있는 세계 최고 기술자원이자 미래 산업이지만 대만의 원전은 단순히 전력 수급에 필요한 발전시설의 일부일 뿐입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탈원전’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총리님께 다음의 질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원자력 기술 붕괴를 방지하시겠습니까?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대외적으로는 22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 수주가 불확실한 상태이고 사우디 등 여러 나라에 대한 원전 수출 상담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중단되어 원자로 등을 제작하고 있던 두산중공업이 5천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고 원자력 부문의 임직원을 대폭 줄이려는가 하면 5백여 협력업체도 일감이 줄어 원자력 기술 붕괴와 대량 실업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재의 상실인 KAIST를 비롯한 전국 대학의 원자력공학과는 지원자가 없거나 줄어 기술전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탈원전에 따른 ‘전기비용’ 인상과 산업경쟁력 추락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우리나라 원전의 발전원가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미국의 2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생산된다고 해도 들쭉날쭉한 발전량 때문에 전기의 품질이 형편없이 나빠 산업현장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강행했다가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것도 전기생산 단가 상승과 전기품질 저하 때문입니다. 일찍이 탈원전을 시작했던 독일은 탈원전 이전보다 3배나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나마 기술력이 뛰어나고 지하에 갈탄이 풍부해 화력발전으로 버티지만 우리나라엔 석탄자원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전기요금을 2배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농촌 시설원예농가나 수산양식업자들의 생산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탈원전 이후에 필연적으로 닥쳐올 전기요금 인상과 이에 따른 산업경쟁력 추락을 무슨 수로 감당하시겠습니까?

▣ ‘탈원전’에 따른 환경파괴는 어찌 하실 것입니까?

정부의 소위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와 가스(LNG)화력발전으로 바뀌나간다고 합니다. 이용률이 15%에 불과한 태양광 백업을 위해 잔여 시간을 가스화력발전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이시렵니까? 더구나 현재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 파괴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수명이 20년인 막대한 물량의 폐 태양광 패널은 앞으로 어떻게 어디에 폐기처분할 것입니까?

▣ 치명적인 미세먼지, 초미세 먼지는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석탄, 석유, LNG 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과 난임, 미숙아 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태양광 보조발전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발전소가 내뿜는 초미세먼지가 가장 강력한 폐암의 원인중의 하나라는 연구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모범국 독일과 이태리가 유럽에서 대기오염 사망자 1,2위 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그동안 국내에서 사망사고 한 명 없는 청정에너지인 원전을 폐쇄하고 무늬만 청정인 가스발전소를 늘리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나라의 정책입니까?

▣ 막연한 두려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도전을 포기할 것입니까?

문명의 이기는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하루에도 10명 이상입니다. 물과 불조차도 자칫 대형 참사를 일으킵니다. 위험을 통제, 관리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입니다. 우리원전은 지난 40년간 우리에게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해주면서 단 한 건의 인명사고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원빈국에서 에너지강국으로 변신한 핀란드는 원전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높이고,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리시설 건립'마저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압도적 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과학기술의 혜택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깊은 연구와 투자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앞선 원자력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원자력의 혜택을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자력 기술을 활용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UAE에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이미 수출했습니다. 원전 1기를 건설하고 수출하면 전문인력 수천명이 동원됩니다. 일자리 늘리기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 원자력이고,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비상구가 원자력 기술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원자력 산업이 미래 수소에너지 경제로 이어주는 징검다리라는 것입니다. 공극의 청정연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에너지 경제는 현재의 원자력 산업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합니다. 빛나는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60년간 갈고 닦은 원자력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이낙연 총리님!

총리님께서서는 지난 89년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포선언'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정책을 늘 '書生的 문제인식과 商人的 현실감각의 조화'속에서 추구하던 김대중 대통령님께서서는 "탈원전이 理想的으로 맞을지 모르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너무 많다"며, 총리님 지역구 선배 의원인 조희철의원의 원전반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국민의 불안감은 매우 큼니다. **국민 간 갈등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하루빨리 건설적으로 승화되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의 쌍두마차, 원전으로 전력공급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뒷받침"하는 미래지향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지난 75년 겨울 동아일보에 백지광고를 내는 마음으로 띄웠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만이 총리님과 제가 가까머리 시절 광주일고 교정에서 만난 학생탐 비문에 새겨진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정신을 실천하고 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2018. 12.11

전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신광조